

한국, 미국의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비교

박 성 택
(연구원 전자·생활산업실장)

목 차

- I. 한·미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현황비교
 1. 세계 전자의료기기 시장점유율 비교
 2. 생산, 수출현황 비교
 3. 국민경제상의 위치 비교
- II. 한·미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원천
 1. 경쟁력 지수 비교 및 원천
 2. 기술개발
 3. 성장기반
 4. 지원시책
- III. 시사점

I. 한·미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비교

1. 세계 전자의료기기 시장점 유율 비교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184억 1,400만달러에 이

본고는 지난 11월 15일 통상산업 부주최로 열린 제26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전자의료기기산업)에서 발표된 내용을 게재한 것임.

르고 있으며 1981년이후 연평균 8.6%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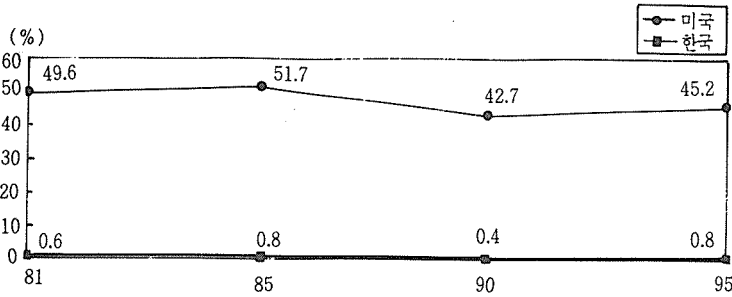
미국은 1995년 현재 세계 전자의료기기기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1980년대까지 세계 시장의 50% 정도를 공급해 왔으며,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컴퓨터, 센서, 계측제어, X-선, 레이저, 영상 및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전자기술이 복합적으로 응용되어 있어 기술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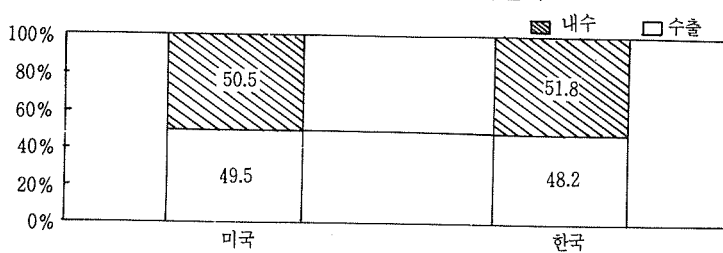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과 일본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개도국에서도 급격한 경제 발전의 결과로 첨단 전자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육성에 관심이 높아져 저가제품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수요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0.8%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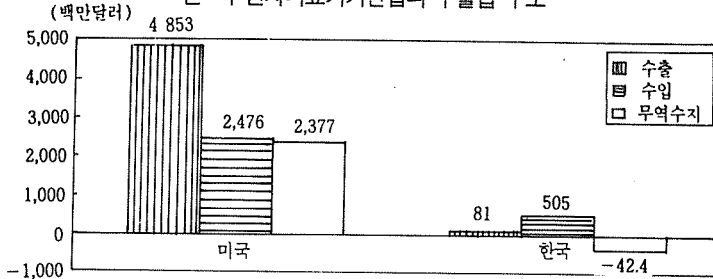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생산·수출비교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수출입 구조



한국의 전자 의료기기 산업은 1970년대 X-선 촬영장치를 국산화하면서 태동되었고, 1980년대 이후 초음파 영상진단기, X-선장치, MRI 등을 국책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관련 기술의 부족과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부족으로 주요 생산·수출이 초음파영상진단기, X-선장비, 전자혈압계 등 소수 중·저가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말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

2. 생산·수출 현황 비교

미국과 한국, 수출·내수가 비교적 균형을 이룬다 할 수 있다.

미국의 전자의료기기는 생산 중 50.5%가 내수시장, 49.5%가 수출시장에서 판매되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은 생산 중 51.8%가 내수시장, 48.2%가 수출시장에서 판매되어 미국보다

는 내수비중이 다소 높으나 수출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전자 의료기기 산업은 1995년말 현재 23억 7,700만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중·저가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4억 2,400만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적자는 소득향상으로 고급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MRI, CT 등 고급 시스템기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제품은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단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간 전자의료기기 교역에 있어서는 수출·입 모두 확대되는 추세로 미국이 흑자를 보여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내에서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고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대미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비교적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3. 국민경제상의 위치 비교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전자의

한·미간 전자의료기기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2	1993	1994	1995
대 미 수입	68.8	98.1	150.8	148.5
대 미 수출	8.5	6.7	15.0	16.4
무역수지	-60.3	-91.4	-135.8	-132.1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치 비교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생 산			수 출				
	미국 전자 의료 기기 (A)	미국 제조 업에서의 비 중	한국 제조 업에서의 비 중 (B)	미국 수출 비 중 (B/ A)	미국 총수 출에서의 비 중	한국 수출 비 중	한국 총수 출에서의 비 중	
1992	8,580	0.8	0.03	3,388	39.5	0.76	37.8	0.04
1993	8,703	0.7	0.04	3,619	41.6	0.78	31.4	0.05
1994	9,396	0.7	0.04	4,304	45.8	0.84	45.9	0.07
1995	9,800	0.7	0.04	4,853	49.5	0.83	48.2	0.06

료기기의 비중은 미국이 더 높다.

미국 전자의료기기산업은 높은 기술수준과 연구개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미국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0.7%인데 반하여, 한국은 1995년말 현재 0.0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성숙기에 도달하면서 의료복지와 같은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과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 반면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의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부문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전자의료기기의 총수출에서의 비중(전자의료기기수출/총수출)도 한국의 0.06%보다 높은 0.83%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출비중(수출/생산)도 한국의 48.2%보다 다소 높은 49.5%를 나타내고 있다.

GE, HP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세계에서 절대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산학협동 형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생산기술을 제외한 설계,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MRI, CT, 고해상도 초음파진단기 등의 고가품의 기술개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II. 한·미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원천

1. 경쟁력 지수 비교 및 원천

(1) 경쟁력 비교

가. 기술개발력

미국은 전자의료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전자공학, 전산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화학 등의 공학기술과 의학, 생리학 등의 기초기반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데다가,

나. 마케팅 능력

전자의료기기는 생명을 다루는 기기이므로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망의 구축이 마케팅능력을 결정한다. 미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자의료기기시장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표인지를 확보하고 있고, 서비스망이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마케팅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중소기업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비교

구 분	미 국	한 국
기술개발력	100	50
마케팅능력	100	30
제품 구성	○ 핵심 부품 및 첨단제품 - MRI, CT, 초음파진단기 등	○ 중저가의 보급형 기기 - 초음파진단기, X-선 장비, 전자혈압계, 소독기, 환자감시장치 등
총 합	100	40

인 관계로 상표 인지도 등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품질면에서 선진국제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내시장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제품 구성

미국은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MRI, CT, 고해상도 초음파 진단기 등과 같이 가격 비탄력적인 첨단 고가 영상진단장비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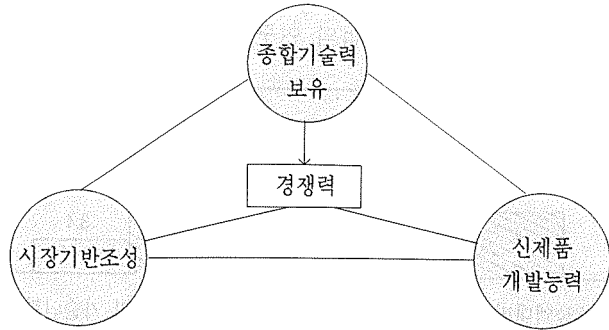
한국은 기술개발력 부족으로 인하여 첨단 고가장비보다는 초음파 진단기, X-선장비, 전자혈압계, 소독기, 환자감시장치 등과 같이 가격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저가 보급형 의료기기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들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급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2) 경쟁력 원천

전자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원천은 크게 시장기반, 종합기술력, 그리고 신제품 개발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경쟁력 원천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원천들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



다.

종합기술력의 경우, 전자의료기기는 신소재, 기계, 전자, 정보공학, 의학, 생리학 등 관련 기초기술이 복합되어 만들어진 기기이기 때문에 이들 기초 기반기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은 이들 관련 기초 기반기술을 골고루 확보하고 있다.

수요기반으로는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자국의 거대 시장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수준과 상표 인지도를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시장을 확보, 자국업체의 공급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신제품개발의 경우, GE, HP, Honeywell 등의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축적된 정밀기계, 정밀전자 및 바이오트로닉스 등의 고도기술을 통하여 복합 지능형

의료기기 및 인공장기, 생체공학 등의 첨단 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기의 경우 256채널, 3차원 제품이 개발중에 있으며, X-선 장비는 디지털방식의 제품이 개발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종합기술력, 시장기반, 신제품개발능력 등 경쟁력 원천이 미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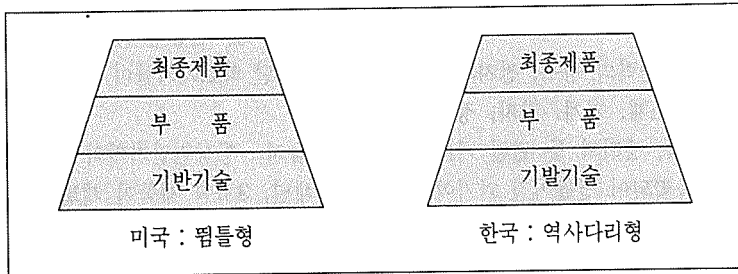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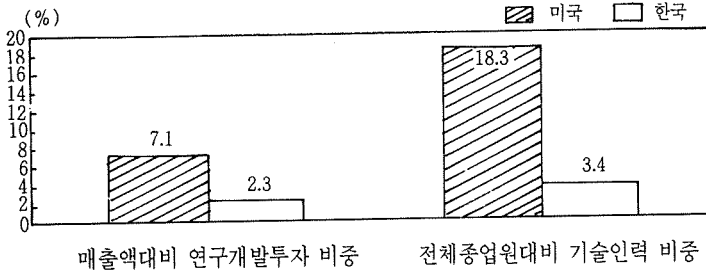
정부가 전자의료기술을 국책과제로 선정하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의 영세성으로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하고,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부족하여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기반으로는 최근 들어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 진료에 대한 선호, 고령화, 병원의 잇단 신·증설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신제품 개발능력

구 분	미 국	한 국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256채널급의 고해상도 3차원급 칼라도플러	64채널급의 해상도 2차원급 칼라도플러
X-선 장비	디지털 방식 무필름 판독 및 영상정보저장	아날로그 방식 필름 판독
전자혈압계	다양함	단순함
환자감시장치	복합측정	기능별 측정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비중



로 90년대 들어 내수시장이 급팽창하여 왔으나, 국산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국내시장의 대부분이 외국제품에 잠식당하고 있다.

신제품개발 능력에 있어서도 전자 의료기기산업이 단순조립생산 위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설계 및 핵심부품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X-선 장비, 전자 혈압계 등 소수 중.저가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MRI보급형 개발, 64채널, 2차원급의 초음파진단기기의 개발 등 제품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2. 기술개발

전자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품질문제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의 투입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비중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미국이 7.1%로 한국의 2.3%에 비해 3배가 넘고, 전체 종업원 대비 기술개발 인력의 비중도 미국이 18.3%로 한국의 3.4%보다 5배이상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위 4~5개업체에 연구개발투자자와 기술인력이 집중되어 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단순조립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성장기반

(1)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기반 구조

전자의료 기기산업의 기반구조는 미국이 안정적인 계층구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자의료 기기산업을 둘러싼 기반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즉 기초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부품개발이 가능하고 나아가 신제품의 개발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은 전자 의료기술의 토대를 이루는 의학과 공학기술이 고루 발달되어 있고 세계 시장의 45%에 해당하는 내수시장 및 세계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초 기반기술이나 주변 산업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전자 의료기기산업이 전개되어 있어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2)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산업조직 비교

미국의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전자의료기기시장은 GE, HP 등의 대기업에 의해 과점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MRI, CT,

미 국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분업체제 구축 - 대기업 : MRI, CT 등의 대형 시스템기기 - 중소기업 : 생체계측, 검사장비 등 중소형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기반 구축 - 중소기업의 규모의 상위 4~5개 업체가 시장을 주도

초음파 등의 대형 시스템장비의 개발에 주력하고, 전문중소기업들은 생체계측, 검사장비 및 임상분석기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부문에 특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전자의료기기산업은 대부분이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50여개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디슨, 삼성 GE의료기기, 중외메디컬, 동아 X-선기계 등 중소기업규모의 4~5개 업체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첨단 의료장비의 개발은 매우 미흡하며,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인력과 자본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4. 지원시책

(1) 미국의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육성 정책

미국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미국은 에너지, 신소재, 정보통신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들 다양한 첨단 기술이 의료기 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산업계 기술개발지원 증대, 국가 공동연구개발법 제정(1984년)으로 기업의 공동개발 사업지원체제 확립, 바이 아메리칸 법(1983년)을 통한 국산판매 지원,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산업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한국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육성 정책

1970년대 초 X-선장비를 생산

하기 시작하여 태동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1980년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였으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업체 규모가 중소기업형태로 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지원은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성과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기술개발지원은 직접 개발보다는 기업 및 학계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자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산업 첨단기술 및 제품의 기술개발사업(1990년 첨단산업으로 고시), 공업기반 기술 개발사업, 선도기술 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 개발사업 등으로 전자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촉진을 위하여 전대차관 및 EDCF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전자의료기기산업 육성정책비교

미 국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 공동연구개발사업체제 확립 - 국산판매지원 - 기업에 대한 저리자금지원 및 세제감면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국산화 정책(1984년, 보사부) ○ 기술개발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나 성과 미흡 -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 - 첨단기술제품기술개발사업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 수출 촉진 - EDCG 활용 추진중

II. 시사점

1. 국내외 수요개발

소득 향상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전자의료 기기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수입품으로 잠식되어 가면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수요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입대체와 수출 촉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수출시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판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내의 기술수준, 판매망 등을 감안하여 비교적 시장진입이 용이한 품목을 선정하여 상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의료기기 시장은 초기 진입이 매우 어려운데,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수출시장에서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시장진입을 위하여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에 국산 전자의료기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마케팅 능력의 제고

국내 전자의료기기산업은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낮고 A/S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마케팅 능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전자의료기기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업계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나아가 전자의료기기 해외 상설 전시장의 설치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출자형태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대리점과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공동사용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정보 입수를 효율화하며, 공동 A/S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의료기기 전문업체는 연구개발에,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은 강력한 마케팅에 주력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부족한 정보력, 마케팅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

3. 제품구조의 고도화

현재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X-선장비, 전자혈압계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구조를 보다 고부가 가치제품 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MRI, CT 등의 고부가 가치제품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진료

에 대비한 제품 등의 개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4. 기초기반기술의 확립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및 기초기반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

소량 다품종의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상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전문호를 유도하며,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전자의료기기시장이 협소하여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체 연구개발과 함께 선진업체들과의 기술협력 등을 모색함으로써 핵심기술의 습득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5.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의 구축

부족한 자본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대학, 정부연구소 등에 흩어져 있는 인력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의 의공학과, KIST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의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제를 보다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기술개발과제 선정시 시장성, 개발가능성, 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전자 의료기기가 의학과 공학이 통합된 제품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실수요자인 의료기관과 제조업체와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6.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전자 의료기기산업은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소득 증대에 따라 시장이 증가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크나,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어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현재 산·학

협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체계의 구축, 인력 양성, 효율적인 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화의 확산 등 기술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정부는 ENG카메라 등 방송용 장비를 비롯한 25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이달 말 해제, 97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말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개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수입이 불가피한 △방송용 장비와 △21인치 이하 컬러 TV △게임기 △라디오 CDP △자동차용 CDP △실리콘 웨이퍼 등 전자관련 6개 품목을 포함, 총 25개 품목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키로 했

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연말에 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던 △25인치 컬러TV를 비롯한 화이트TV와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 △휴대폰 △팩스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종전 152개에서 137개만 남게 됐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내년 무역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재료 관련 품목들은 내년 정보기술협정(ITA) 발효로 수입선다변화로 묶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해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78년부터 시행중인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범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DECD)의 가입으로 이의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수입선다변화 추가해제 대상품목을 확정, 발표해 왔다.